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9. 3. 29.(금) / 총 5매(본문 3매)
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과장 운영중, 사무관 이정원 ·☎ (044) 201-3862, 3867
보 도 일 시		2019년 4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인터넷은 3. 3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 “교통사고 절반으로”

1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주간 선포…졸음운전·대형사고 줄이기 총력

- ◆ 국토부·경찰청, 범정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 선포(4.1~4.7, 7일간)
- ◆ 졸음운전·대형사고 많은 4~5월 교통사고 예방 집중 점검
- ◆ 주요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서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 ◆ 4.3(수) 청계광장서 가상현실(VR)·음주운전 위험 체험 등 시민참여형 캠페인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봄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졸음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4.1~4.7)’을 선포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를 상세분석한 결과, 봄 행락철에 졸음운전과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월에 춘곤증 등에 따른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명으로 다른 월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각종 지역행사와 수학여행 등으로 대형버스 이동이 많아지면서 대형교통사고* 사망자가 30명 발생했다.

* 대형교통사고 :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0명 이상인 교통사고

<졸음·대형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15~'17년)>

(단위 : 명,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졸음사고	283	19	20	19	20	32	24	22	32	28	35	13	19
비율	100	6.7	7.1	6.7	7.1	11.3	8.5	7.8	11.3	9.9	12.4	4.6	6.7
대형교통사고	212	11	17	23	12	18	12	21	18	21	31	19	9
비율	100	5.2	8.0	10.8	5.7	8.5	5.7	9.9	8.5	9.9	14.6	9.0	4.2

(자료 : 경찰청)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4.1~4.7)을 통해 지자체, 교통안전기관 등과 함께 전국 동시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집중단속 등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 캠페인은 각 지역별로 4.2(화)부터 4.5(금)까지 주요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관공서 및 기관에 교통안전 현수막, 배너 등을 부착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 특히, 4.3(수) 서울청계광장에서 시행하는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 가상현실(VR) 4D 시뮬레이터 체험, 음주운전 위험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더불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교통사고 사진 전시가 열리고,
 - 이번 캠페인에는 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을 비롯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졸음운전·음주운전·과속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띠매기' 결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청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 특별주간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전년대비 404명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첫 3,000명대에 진입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 “월별로 보면 4월에 전년대비 사망자가 10명 증가한 면이 있어, 봄철 교통사고 주범인 졸음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추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국 198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218곳의 졸음쉼터를 충분히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붙임 1.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 캠페인 리플릿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이정원사무관(☎ 044-201-38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표지 및 뒷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안전속도 50 30

1 안전속도 50 30은 왜 하는 건가요?

-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 3.5명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
- 보행자 교통사고의 81.7%는 도심부에서 발생합니다.

2 안전속도 50 30 어떻게 시행되나요?



3 안전속도 50 30의 정책효과는 어떤가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 차이가 미비함



※ 도심 60km/h→50km/h 시행시 통행시간 차이가 미비함(42분에서 2분 차이)

(4.1~4.7)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ex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 내지면

딱 '한 잔도 절대 금물! 음주운전 추방!



①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0.95명 사망('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사망자	4,521	4,292	4,165	3,787
음주사망자	583	481	459	346
비율%	12.9	11.2	11.0	9.1

②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음청호법 주요내용)

음주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부상사고	1년~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음주 적법기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 재취득 제한	3년 전유 기준 : 2회 이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18. 12. 18
* 「도로교통법, 시행」19. 6. 25 예정

봄철 졸음운전 NO!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30%는 졸음운전 사고!

졸음운전 사망률 음주운전 사망률의 7배 ↑

음주 3.6% 졸음 25.8%

정신이 순간적으로 맑아지게 되는 졸음운전은 '달리는 폭탄'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부릅니다.

- 졸음방지 체계, 영, 생수 등 졸음 방지용품들 사용한다.
-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 공기를 자주 순환한다.
- 운행 중 졸리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한다.
- 운전 중 정차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전좌석 안전띠 매기

-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18.9.28 시행)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중 24%는 안전띠 미착용('17)

① 안전띠 착용률 앞좌석 88%, 뒷좌석 33%('18년)



* 국가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독일(9%), 덴마크(9%), 스웨덴(90%)

② 안전띠를 매면 교통사고 시 충격 70% 감소



③ 안전띠를 안 매면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크게 증가!

뒷좌석 탑승자 2배 ↑ 뒷좌석 탑승자 3.8배 ↑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 영유아는 카시트에

□ 현수막

졸음운전 NO! 음주운전 OUT! 전좌석 안전띠 YES!

교통안전 특별주간 (4.1 ~ 4.7)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TS 전국교통안전재단 EX 전국도로관리